

<2014.10.21.~2014.10.22.>

전북도민일보

2014년 10월 22일 (수)
지역 08면



고창군은 20일 군청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강 기수역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인천강 기수역 복원 타당성 조사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인천강 기수역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강 기수역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고 인공제방 건립 등으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복원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올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20일 군청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실

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갖고 복원의 필요성 및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우정 군수는 “기수역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존 갯벌 복원 사업결과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방 철거 등 집중적인 환경 복원”을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105 X 132 mm

고창군, 인천강 기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고창군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의 하구를 말한다.

기수역은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농경지 활용 및 인공제방 건립 등으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올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중간 보고회는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해 복원의 필요성 및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우정 군수는 기수역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존 갯벌 복원 사업결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방 철거 등 집중적인 환경 복원을 당부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170 X 46 mm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중간보고회

고창군, 12월까지 타당성조사...자연생태계 복원에 집중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4월부터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의 하구를 말하며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농경지 활용 및 인공제방 건립 등으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중간 보고회는 지난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하여 복원의 필요성 및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우정 군수는 기수역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존 갯벌 복원 사업결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적인 환경 복원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10 X 76 mm



고창군은 지난 4월부터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인천강 기수역 복원 중간보고회

고창, 필요성·사업 추진방향 논의... 생태계 복원 노력

고창군은 지난 4월부터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의 하구를 말한다.

기수역은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농경지 활용 및 인공제방 건설 등으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금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중간보고회는 지난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25명이 함께해 복원의 필요성 및 복원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우정 군수는 “기수역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존 갯벌 복원 사업결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방 철거 등 집중적인 환경 복원”을 당부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108 X 157 mm

고창, 인천강 기수역 복원 나선다

올해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진행키로

고창군은 지난 4월부터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의 하구를 말한다.

기수역에는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 농경지 활용 및 인공제방 건립 등으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복원을 위해 인천 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중간 보고회는 지난 20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군수, 부 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모여 복원의 필요성 및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우정 군수는 “기수역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존 갯벌 복원 사업결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방 철거 등 집중적인 환경 복원”을 당부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112 X 88 mm

고창 기수역 생태계복원 타당성 조사

기존 갯벌복원사업 연계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
녹색관광상품화역량 집중

고창 인천강 기수역이 갯벌 환경개선과 생물 다양성 제고를 통해 자연생태계 복원에 집중함으로써 국내 생태적 갯벌복원의 대표적 사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21일 군은 현재 기수역이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농경지 활용 및 인공제방 건립 등으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 하구를 지칭하는 기수역은 육상 동식물에서 해양생물에 이르는 중간대, 전이대로 생태학적 특성이 독

특하고 생물권 가운데에서도 기초생산력이 가장 높은 지대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귀성 어류의 산란을 위한 경로로 이용되며 기수성 생물의 중요 서식장소로도 그 중요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운영관리업무, 시설물 유지 보수, 지역주민 참여 방안 등이 검토되는 용역보고회를 20일 가졌다”며 “기존 갯벌복원 사업과 연계해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

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기수역을 자연적 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개성과 전통이 있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특히 람사르습지인 고창갯벌과 연계해 해양의 특성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녹색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

243 X 78 mm



전국 > 전북

고창군,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중간보고회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4.10.21 14:26:26 송고

전북 고창군 아산면에서 심원면에 이르는 인천강(주진천) 기수역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중간 보고회가 20일 고창군청에서 개최됐다.

기수역 복원사업은 농경지 활용 및 인공제방 건립 등으로 생태계 단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수역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의 하구를 뜻하며, 다양한 육상와 해상 생물이 함께 살아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아산면 인천강에서 심원면 갯벌에 이르는 5km구간에 대해 인공물 제거, 제방하천 복원, 양식장 철거, 자연생태복원 등의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는 올 12월까지 진행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기수역 복원사업을 국내 기존 갯벌복원 사업결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